

동부, HIPS 증설 “수출시장 공략”

2004년 12월 HIPS 1만5000톤 증설 ... Styrene계 신규사업도 물색

동부한농화학이 2004년 12월부터 HIPS(High-Impact Polystyrene) 생산규모를 1만5000톤 이상 증설해 중국 이외의 중동·유럽·아프리카 등으로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PS는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이지만 중국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아프리카와 중동 등 중국 외 지역에서의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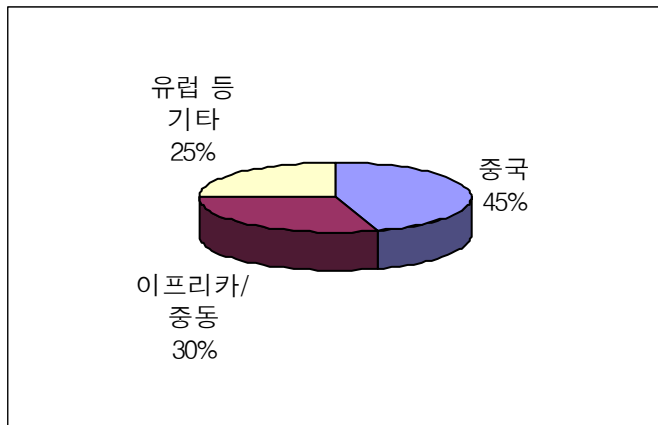
아프리카에는 현지 생산 메이커가 없고, 특히 2003년 6월부터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의 수요가 늘고 있다.

동부한농화학은 증설계획 이전에도 경쟁기업에 비해 역외지역 수출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나 12월 HIPS 증설을 통해 수출노선 다변화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Styrene계 신규사업 구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SM이나 기타 부문에서의 신·증설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직계열화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동부한농화학의 PS 수출비중(2003)



한편, 동부한농화학은 현재 SM(Styrene Monomer)과 PS(Polystyrene)의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으나 다른 PS 메이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작아 자사 PS 생산용 외에 5만~6만톤 정도를 중국이나 내수판매에 의존해 왔다.

동부한농화학은 GPPS 5만5,000톤, HPS 3만5,000톤을 생산해 왔으나 HIPS 1만5,000톤 증설로 한해 10만톤 이상의 PS 생산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4/05/06>